

도, 섬유산업 성장 이끈다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중장기 대책마련 강조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21일 전주 라부체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전북 섬유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ECO융합섬유원은 도내 섬유업체의 해외이전, 투자부진 등으로 인해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전북 섬유패션산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섬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섬유패션산업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말 그대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기존의 개념이나 변화와는 확연히 다르며 그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그 개념조차 제대로 정되어 있지 않아 우선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섬유패션산업에 경쟁력 있는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패션유통의 변화와 미래는 주제로 나선 (주)휴먼텍스트 손용재 대표는 초연결, 조지능, 예측가능이라는 4차산업혁명의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섬유패션과 유통분야에서 더 큰 점점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주도 할 것이라 예측했다.

섬유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과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 및 섬유패션 산업의 변화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섬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다짐

21일 전주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주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208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주역 칭송

역대 최대규모로 1000억원 이상 경제파급효과 도, 태권도인·관계자에 감사패·공로패 전달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서울에서, '2017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에 기여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태권도인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힘을 합쳐 애써주신 덕분에 대회기간 동안 4만2000여명(1일 평균 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음에도 사건, 사고 없는 수준 높은 대회로 마

무리 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에 맞춰 광역거점별 태권시티 주요사업이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반영되고, 태권도원이 가치를 인정받으며 발전되고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태권도 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무주군 설천면 소재)에서 개최되었던 '2017무주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는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20년만의 전라북도에서 열린 국제대회로 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83개국이 참여했다. 또한 대회를 통해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태권도원이 태권도 중추국의 핵심시설로 흥보, 국가수반이 참석한 역대 최초의 대회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렸다. /김진성 기자

文 대통령 "지진 방지책 점검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시설물 가운데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시설, 사유 시설에서는 서민 주거시설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함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는 어제 포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지원, 또 파손 주택 복구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일어난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주기 바란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르주시고, 특히 포함 지역 수험생들 힘내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지진 대책이 지진이 날 때뿐만 아니라 평소 애꾸준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과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줄길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지진 단층조사, 또 450여 개 활성 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 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과 보안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인권행정 실현, 최선의 노력 다해야"

전북도 인권위원회 개최

전북도는 21일, 2017년도 제4차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군)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성과와 2018년도 새롭게 추진 될 인권시책 등 주요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년도에는 ▲ 도민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 ▲ 인권문화 컨벤션 행사 및 인권작품 공모 ▲ 도민 인권보호체계 구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등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실현할 계획

이다. 특히,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한편, 올 12월에 개소 예정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신양군 위원은 "내년에 새롭게 추진 될 인권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도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를 강화해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군 농촌정책 '잘했다' 농민청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교육사업 등 혁신적인 농촌정책을 잘 추진해온 지자체로 평가됐다. 특히 민선6기 창의적인 공약사업으로 꼽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작업 대행단 운영에서 높은 실적을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21일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이 실시한 농업기계 교육분야 ICT기반 스마트팜 교육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제주도 한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촌진흥청은 올 한해 전국지자체 중 농업기계교육사업 실적 이 우수하고,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에 두각을 나타낸 기관을 선정, 시상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촌지도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기계 교육과정과 임대실적, 언론홍보 및 ICT기반 스마트팜 지자체 확대노력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군은 농작업 대행단 등의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에 앞장섰다. 영농철에는 휴일까지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농작업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농업용 드론 등 특수농기계 교육을 통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섰다. 기순도 소장은 "이번 수상은 시대와 지역에 맞는 임대사업 운영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새만금산단 가스공급 제어 관리소 임시사용 승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일 한국가스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내 가스 공급량을 제어하는 '새만금 가스공급 관리소'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만금 가스공급 관리소'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동시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936억 원을 들여 총 28.46km(군산 공급관리소~새만금 관리소)의 가스배관 공사를 시작해 올해 9월 완공한 이후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박종민 객석지원담당관은 "입주기업이 공장 가동과 시설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